

생각하는 문화정책으로

김우중

문학평론가 · 한국대학신문 주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아주 희한한 역설적 표현으로 군주정치의 악랄한 기법을 말해주고 있다. 민중을 지배하는 군주정치체제에서는 민중을 항상 빈곤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악질적 통치방법의 하나다. 왜냐 하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타락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항상 전쟁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민중들에게 용감하게 활약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민중을 지배하고 통치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군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죽어가면서 우쭐대는 영웅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지배는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일년 중 적당한 시기에 명절을 즐기게 하고, 전람회 열어 민중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통치기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 들뜬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인 행사에 몰입시켜서 그들의 일을 빼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비록 분단은 되었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정치체제가 군주체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겪어온 바로는 우리를 위에 군림해온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감탄이 나올 만큼 잘 따르고 실천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중으로 하여금 명절행사에 들뜨고 전람회 행사에 열광하게 만드는 통치방법은 이 나라의 출판문화 발전을 저해해온 가장 간악한 횡포였다. 출판물은 무엇인가.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활자에 의한 인쇄매체다. 그리고 이것은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풍부한 지식과 감정을 전달하고, 깊은 사색의 동기와 창의적 상상력을 유발하고, 높은 교양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독서를 하려면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하다. 마치 잠님이 끼어들면 명상이 안되듯이 독서도 다른 외부적 장애물이 개입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책을 내던져 버리게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문화적인 행사가 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교과서로 삼아 불순한 동기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생긴다.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이런 일에 매우 능란했다. 갑자기 라이언, 타이거, 베어, 돌핀 등 큰 기업체들이 야구단을 만들고 이 나라의 민중들이 운동경기장과 TV 앞에서 흥분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따돌리고 열광하게 만들려는 음모가 도사린 것이었다. 올림픽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또 온갖 음악행사·미술행사 등도 그렇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화려한 대형 공연장, 전람회장을 짓고 경기장을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일년 365일이 거의 끊임없이 명절날이고 행사날이 되어 들뜨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판문화는 성장해 나갈 도리가 없다. 국민들이 집안에서 조용히 독서하고 사색할 수 있는 여건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니 지난날의 이런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화려하게 관심을 끄는 시각적·청각적 전시문화, 행사문화를 지양하고 생각하는 문화로서의 독서문화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앙케트	2	'책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이루길 새 정부에 바라는 각계 15인의 의견
출판통계	9	출판계 활로찾기로 발행종수 소폭증가
표지의 책	10	한땀 한땀마다 예술을 심은 규방의 살림 《한국의 규방문화》 펴낸 허동화씨
만화	11	책과 오대리 - 박시백
기획 취재	12	"텔레비전에 책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에세이	14	어려웠던 시절, 따뜻한 이야기 이승우/조경란/이희중/하성란
출판화제	16	왜곡된 남성다움의 굴레를 벗는다
저자초대	17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펴낸 최 열씨
화제의 출간	18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프로이트 전집 완간·외
인터넷 출판행태	19	레나 솔의 CGI 스크립트 자료실 - 최중수
가상대담	20	빛나는 지성, 비트겐슈타인과의 만남 - 엄정식 언어의 중요성 강조한 철학, 그 언저리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2	서사시의 '세계전도'를 그리기 위한 여정 - 조동일
책갈피 산책	13	민두기 《한송이 들꽃과 만날 때》 - 윤혜영
	23	시드니 민츠 《설탕과 권력》 - 유시춘
서평	24	방동인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 이희덕
		최원식 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김태승
	25	코르뱅 《이슬람철학사》 - 송태현
		베어 《키를 웅》 외 - 이나미
	26	다이슨 《인터넷, 디지털 문명이 열린다》 - 백옥인
확대서평	27	김종선 《한국 고대국가의 노예와 농민》 - 양기석
이 책 그 사람	28	《음악이 있는 풍경》 펴낸 김정환씨 《한반도 30여년의 비밀》 펴낸 유정아씨
	29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펴낸 배용제씨
	30	시집 / 32 새 책 속으로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③